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준비 집중...尹측 요구엔 '무시'

체포영장 재발부 연장사흘째...경찰과 집행시점·전략 협의 "기소나 구속영장" 주장에 "검토 안해"...선임계 등 신경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나서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윤 대통령 측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경찰과 구체적 협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3일 집행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 기간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7일 발부받았다.

집행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공수처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실패가 없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고 신중하게 집행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앞선 1차 시도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터라 공수처가 곧바로 집행에 나서기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예상대로 일단 호흡을 가다듬는 상황이다.

다만 1차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 일주일 만에 2차 시도는 만큼, 공수처와 경찰이 두 번째 시도에 나서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는 대통령경호처 작업이 심화할 수 있는 데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경 지휘부가 이미 대부분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수사만 계속 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집회 인파가 몰리는 주말보다 평일을 택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기는 이르면 10일이 아니면 13일께 등의 관측도 나온다.

이번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3차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큰 데다, 영장 유효 기간도 1주일 이상으로 관측되는 만큼 준비에 시간을 더 들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영장 집행은 결국 공수처장과 경찰 지휘부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시기 선택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아울러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사이에



내란수괴 비호자 즉각 처벌하라!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우두머리)를 비호하고 제2내란을 획책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주요 간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명분 축적을 위한 기싸움도 가열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없이) 기소를 하든지 정 조사를 해야겠다"며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변호

사 선임계도 안 들어왔고 피의자가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가 비상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도 전날 공수처에 면담을 요청하려 방문했지만 공수처가 사실상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신임검사 면접 등으로

면담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민원실에 내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형 사건 수사에서 변호인과 조율을 건너뛰는 사례 역시 흔한 건 아니다. 또한 검찰 등의 대형 수사에서 변호인과 아무런 연락 없이 선임계를 우편 접수나 민원실을 통해 받은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과 이를 통한 출석 조율 등을 명분으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변호인과의 조율은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이에 관한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

55경비단 병력,尹체포 저지 당시 "지시 거둬달라" 반발

비상계엄 軍 동원 비판 여론에 동요...부모 항의전화도 이어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인간 피'로 동원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일부 병력이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거둬달라"고 지휘부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당시 공수처를 가로막은 1차 저지선은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55경비단 병사 등 군부대 인력 30~40명으로 구성된 '인간 피'였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로,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관한

이 경호처에 있다.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 병사들이 1차 저지선에 동원되자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거둬달라"는 요청이 나왔다고 복수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에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병력이 대거 동원되자 비판적 여론이 일었던 것을 지켜봤던 55경비단 장병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혼란한 분위기 속 55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빠졌지만, 이후 3차 저지선에서 다시 동원됐다. 경호처

직원, 33군사경찰경호대 및 55경비단 병사 등 200여명이 인간 피를 만들었다는 게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판단이다.

경호처가 그간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의무복무 병사들을 동원한 적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경찰이 제출한 영상에는 이들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영장 속 병사들로 추정되는 군 병력은 계급장을 보이지 않았고, 모두 흑색 패딩과 모자, 마스크 등으로 복장을 통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그간 55경비단 동원을 부인하며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

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밝혀왔다.

다만 후방 근무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55경비단장은 추후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병사들을 저지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본인 업무인 관저 외곽경비를 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55경비단 병사들이 급히 동원되다 아집 식사도 못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 소식통은 "55경비단 병사들은 정에 인원인데, 체포 저지에 투입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현재 "여론전 흔들리지 않는다...재판 속도 이례적이지 않아"

尹탄핵 관련 수사기록 일부 확보...김용현 공소장 등 검경 자료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관련 대통령 측 권한쟁의·가처분 심리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놓고 벌어지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양측 여론전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다"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 공보관은 이날 탄핵 심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5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에 접수돼 이달 14일에 첫 변론이 예정돼 있어 31

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가 여론의 압박에 윤 대통령 의 다른 탄핵 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은 헌법재판소가 정지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현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전날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

부 회신을 했다"며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측은 앞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송부촉탁)해달라고 현재에 요청했고, 현재는 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가 확보한 자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해 서울서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을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1차 체포영장 관련 사건도 계속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주철현 "최상목, 부끄러운 줄 알아야"

민주당 최고위서 최 권한대행 강도 높게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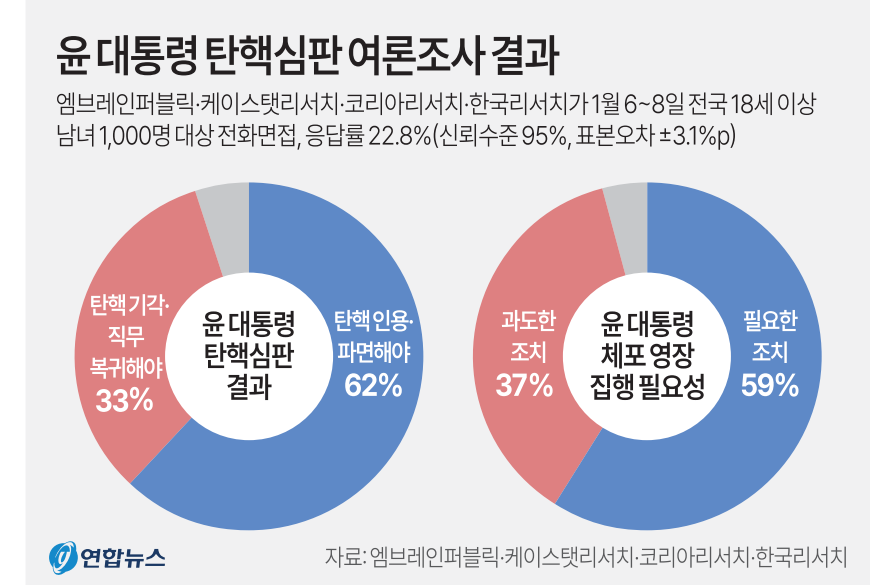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여수갑)은 지난 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주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는 것만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과 국민의힘만 두려워하고 실정법

을 어기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최 대행을 속 빈 말년이 공직사회에 먹힐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 대행이 입 아프게 백날 떠들어봐, 공직사회는 최 대행의 입이 아니라 행동을 본다"며 "공직자와 국민들은 최 대행이 경호처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고 방조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헌법과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내팽개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체 공직자들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내란 수괴와 옹호 정당 앞에 벌벌 떠는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진수 기자



"尹 탄핵 인용" 62% vs "기각해야" 33%

전국지표조사... '尹체포 필요' 59%·'과도한 조치' 37%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과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60%대와 3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2%였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3%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과 관련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53%를 포함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5%였고, '잘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30%였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항으로 불발된 가운데 대통령 체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응답자는 59%, '과도한 조치'라고 답한 응답자는 37%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2.8%다. /연합뉴스

軍 "尹체포 저지 병력 동원 불가"

국방부 "경호처가 적절히 조치할 것으로 생각"

국방부가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경호처가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동시에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차관이 경호처에 입장을 전달한 이후 실무적으로도 재차 확인했고, 경호처는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국방부) 입장은 충분히 전달됐고, 경호처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제차 시도해도 55경비단 병력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